

청대 휘상 강춘(江春)의 희곡 활동 고찰*

車美京**

<목 차>

1. 들어가면서
2. 강춘과 염상 원림문화
3. 희곡 활동
 - 3.1 작품 창작에 기여
 - 3.2 극단 조직 및 공연
4. 나오면서

1. 들어가면서

명 중엽이후 상품경제의 발전으로 상품 유통의 범위가 확대되고 상품의 양과 품목이 확대되면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대되었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 상업과 이익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면서 상업관과 상인관에 대한 인식 변화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상인의 구체적인 활동 양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그 이전시기까지 상인들은 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였다면 명대 중기 이후에는 상인들의 단체와 조직인 상방(商幫)을 형성하여 활동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출신지역 이름으로 각각 진상(晉商), 섬상(陝商), 휘상(徽商) 등으로 불리웠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상인집단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11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중문학부 부교수.

이 휘주(徽州)상인과 산서(山西)상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상업을 중시했던 휘주상인들은 하나의 성(省)을 단위로 하는 다른 상단과는 달리 하나의 부(府)를 단위로 상업 활동을 펼쳐 대자본을 보유한 대상인집단으로 활약이 대단했다.¹⁾

이런 휘주상인이 진출한 지역과 종사 업종은 아주 다양했지만, 그들은 양주(揚州)를 중심으로 염업(鹽業)에 종사했다. 휘상들은 양회염장(兩淮鹽場)의 중심지인 양주에서 염업으로 많은 이윤을 축적하며 상방으로서 성장하였다. 또한 명청시기 염운법(鹽運法)의 개편과정 속에서 휘상은 급성장을 이룩하여 양주 염상으로서의 주도적 지위를 획득하였다.²⁾ 청조의 전성기인 18세기, 특히 건륭연간은 염상들에게도 번영의 시대였다. 양회 염구(鹽區)의 중심도시였던 양주는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다. 양주가 염상의 자본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상업망의 핵심이자 문화적인 중심지로 발전했던 것도 바로 이시기였다. 당시 양주는 휘주 출신 염상의 경제력이 최절정에 달하여 재산이 많게는 천만 냥에 이르렀고, 백만 냥에 이르는 상인들은 소상(小商)이라고 불릴 정도였다.³⁾ 이처럼 거대한 상업 자금이 양주에 유입되면서 양주는 염상의 경제적 후원을 바탕으로 학술, 교육, 출판,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특히 연극도 이런 상황 속에서 번성하여 양주는 ‘연극의 도시’라는 명성을 얻게 되는데, 이 역시 양주 염상의 후원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1) 화북에 晉商이 있다면 강남에는 휘상이 있다고 일컬어지듯 산서상인과 함께 명청시대 상업활동을 주도했던 중국상인의 양대산맥이라 칭할 수 있는 상인이 휘주상인이다. 휘주는 절강성과 강소성의 경계지역으로 산골 깊숙이 위치하여 외부와 통하는 문이 新安江이었는데 이 강을 통해 외부로 나왔다고 해서 新安商人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歙, 休寧, 婺源 등을 포함한 휘주지역은 산서와 마찬가지로 산이 많고 경작지가 적어 사람들이 일찍이 외지로 나가서 상인이 되곤 하였다. 이런 지역적 환경으로 인하여 전체 인구 중 ‘농부가 셋이면 장사하는 사람이 일곱’일 정도로 많은 휘주인들이 외지로 나아가 상업활동을 하여 강남지역 일대에서는 “無徽不成鎮”이라 할 정도로 그들의 활약상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2) 명청시대 鹽運法은 크게 명초의 開中法, 만력45년(1617)의 綱運法, 청 도광11년(1831)의 票法으로 변화했고, 그 가운데 휘상은 개중법에서 강운법 체제로의 개편과정을 통해 양주 염상으로서의 주도적 지위를 획득하여 강운법이 폐기되는 청 도광년간까지의 200여 년 동안 전성기를 누렸다고 알려져 있다. 조영현, <명대 염운법의 변화와 양주 염상>, 《동양사학연구》, 제70집 참조.

3) 王振忠, <明清兩淮鹽商與揚州青樓文化>, 《復旦學報》, 1991, 제3기, 106쪽.

후원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상인이 바로 건륭시기 염상인의 대표를 맡았던 총상 강춘(江春)⁴⁾이다.

강춘(1721-1789)은 휘주에서 양주로 건너와 염업에 종사하는 상인 집안에서 태어나 나이 20여세에 양주 염상의 총상(總商)이 되어 근 50년간을 염업에 종사했다. 막대한 재력을 자랑하는 염상의 총상인 그는 ‘장사를 하면서도 유학을 좋아하는[賈而好儒]’ 휘상의 전통적인 문화를 계승하여 시문 창작뿐 아니라 다양한 회곡 활동을 전개하여 당시 양주의 회곡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강춘이 어떤 구체적인 회곡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그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회곡 활동을 했는지와 이것이 회곡발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문화적 활동이 휘상의 특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 회곡의 발전과정 속에 상인의 역할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이런 포괄적인 회곡 환경의 의의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2. 강춘과 염상 원림문화

강춘은 대대로 염상을 하면서도 유학을 중시하는 상인집안에서 1721년 태어났다. 그의 증조부인 강국무(江國茂)는 염업에 종사하기 위해 양주로 건너와 장사를 하면서 사방의 많은 명사들과 교류하였고, 조부 강연(江演)도 가업을 이어 염상이 되었다. 강연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 한 아들인 강승계(江承階)는 관리가 되어 호부랑중(戶部郎中)과 가흥지부(嘉興知府)를 지냈고, 또 다른 아들인 강춘의 아버지 강승유(江承瑜)는 회염(淮鹽) 총상을 지냈

4) 江春은 자는 穎長이고 호는 鶴亭, 휘주 歙縣 江村사람으로 염업에 종사했고 상호명(鹽務牌)이 廣達이라 강광달이라 불렀다. 그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 염업에 종사하였고 후에 아버지의 서거로 그의 나이 20여세에 總商이 되어 근 50년간을 염업에 종사했다.

다. 강춘은 상인이지만 유학을 좋아하고 동시에 학문에 힘써 자식을 관리로 배출하고자 하는 집안에서 성장했다.⁵⁾

이런 집안 환경으로 강춘은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좋아했으며 가족들도 그가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빛내줄 것을 바랐다. 그래서 그는 팔고문을 열심히 공부하여 향시에 참가하였으나 낙방하였다. 비록 그는 과거에는 낙방했지만 시문에 뛰어나 당시의 유명 시인인 제소남(齊召南), 마왈관(馬曰瑄)⁶⁾과 함께 이름을 날렸다. 예전에 시를 논함에 있어 '남마북사(南馬北査)⁷⁾'라는 명성이 있었는데, 마왈관이 죽자 강춘이 그 명성을 이었다고 한다.⁸⁾ 이로 그가 시문에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⁹⁾

건륭 초 1741년에 양주 관원이 그를 관리로 추천하였으나 정원이 이미 차서 채용되지 못하자 관리의 길을 포기하고 가업을 계승하여 염업에 종사하며¹⁰⁾, 상호명을 '광달(廣達)'이라 하였다. 그는 부지런히 염업에 종사하며 경험을 쌓아 세상 물정에 밝았고, 또한 염법에도 해박하여 당시의 양주 관리에게 신임을 얻었을 뿐 아니라 염상들에게 추대되어 총상이 되었다. 이로부터 그는 근 50년을 염업에 종사했다.

강춘은 풍채가 좋고 멋진 수염을 길렀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고매한 인품을 지녔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전체를

5) 明光, 《揚州戲劇文化史論》, 社會科學文獻出版社, 348쪽 참조.

6) 제소남(1703-1768)은 자가 次風이고, 호가 瓊台이며 만년의 호는 息圃이다. 절강 천태사람으로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며 16세에 제생이 되었고 22세에 공생이 되었다. 옹정 때 향시에 합격하여 副貢이 되었고 건륭 병진년에 박학홍사로 추천되어 서길사를 제수 받았다.

7) 남마북사는 天津의 염상인 查氏 형제와 馬曰瑄을 가리킨다. 사씨 형제는 查爲仁和 查爲義이다. 이들 형제는 학자 집안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학문에 힘써 시문으로 당시에 명성이 높았다. 마왈관은 기문의 제생으로 학문을 좋아하고 옛일을 두루 알며, 시문에 능한 것으로 유명했다.

8) “初爲儀徵諸生, 工制藝, 精于詩. 與齊次風馬秋玉齊名. 先是論詩有南馬北査之譽. 迨秋玉下世, 方伯遂爲秋玉後一人”, 《揚州畫舫錄》, 中華書局, 2004, 247쪽.

9) 강춘의 문학작품이 전해지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揚州畫舫錄》에 의하면 《水南花墅吟稿》와 《深庄秋咏》이, 그리고 강춘의 묘지명을 쓴 袁枚에 의하면 《黃海遊錄》이 있다고 한다. 이 세 시집은 《隨月讀書樓詩集》에 실려 있다. 또, 《隨月讀書樓詩集》은 강씨 집안의 창작을 함께 엮은 《新安二江先生文集》에 실려 있다.

10) 《歙縣地》卷九云: “江春少攻制舉業, 乾隆辛酉(1741)鄉闈以兼經呈薦, 因額溢見遣, 遂棄帖括經商揚州”.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¹¹⁾ 이런 그의 능력과 품모가 총상의 역할을 하는데 큰 장점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국가의 대전이나 큰 부역을 맡은 경우, 관부에 자문이 없을 때에는 공(즉 강춘)에게 의지하였다. 경력이 오랫동안 쌓여 놀라운 판단력으로 뜻을 받들고 문제점을 도모하여 모든 이의 진심을 움직여 매사에 대해 발언을 하고 계획을 해도 모든 상인들이 공손히 받아들였다”¹²⁾고 한다. 이처럼 강춘은 뛰어난 능력으로 염상들의 존경을 받았고, 능숙한 일처리로 관부의 신임을 얻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여섯 차례 남방을 순시하는 건륭제를 극진히 영접하고 보필하여 두터운 신임을 얻어 벼슬을 하사 받았다.¹³⁾

또한 강춘은 환관 장봉(張鳳)을 잡는 공을 세워 황제로부터 포정사(布政使) 직함을 받았고¹⁴⁾, 황제의 명으로 국고 삼십만 냥을 빌려 황실에 이득이 되게 하여 천수연(千叟宴)에 참석하게 되었다.¹⁵⁾ 이처럼 강춘은 건륭제와 긴밀한 관계 속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증명할만한 사건이 바로 염인안(鹽引案)으로 일종의 세금탈루이다. 당시 염상들이 정부에 수입의 일부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생긴 일로 당시 총상인 강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경사로 체포되어 갔으나 건륭제의 신임으로 사면되었다. 이처럼 강춘의 50년 총상 기간은 건륭제와의 긴밀한 역학관계 속에서 보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양주염상들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이윤으로 아무리 사용해도 끝이 없을 정도의 부를 누렸다. 이렇게 되자 양주의 도시 경제는 사치와 소비로 넘쳐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양주 염상들은 거대한 상업자본을 이용

- 11) “體貌豐澤，美鬚髯，爲人含養圭角，風格高邁，遇事識大體”，《揚州畫舫錄》，247쪽.
- 12) “恭遇國家大典大徭役，大府無可咨詢，惟公是賴，公閱歷既久，神解獨超，輔志弊謀，動中款要，每發一言定一計，群商張目拱手畫諾而已，袁枚，《小倉山房詩文集》，上海古籍出版社，1988，1862쪽.
- 13) 건륭제는 건륭16년(1751)，22년(1757)，27년(1762)，30년(1765)，45년(1780)，49년(1784)에 남방을 순행했다. 강춘은 건륭22년(1757)에 두 번째 남순에도 최선을 다해 염상으로써 받을 수 있는 최고 관직인 정삼품봉신원경직함(正三品奉宸苑卿職銜)을 제수 받았다.
- 14) “方伯以獲逸犯張鳳，欽賞布政使秩銜”，《揚州畫舫錄》，247쪽.
- 15) “復以兩淮提引案就逮京師，獲免。會奉旨借帑三十萬，與千叟宴，其際遇如此”，《揚州畫舫錄》，247쪽.

하여 오히려 사대부적 문인생활을 추구하기 원하면서 점차적으로 그들의 문화를 모방하기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양주에는 원림을 건축하는 붐이 일기 시작하였고 유흥과 가무를 즐기는 분위기가 살아나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다. 원림은 문화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의미를 지닌 건축예술로 그 속에서 문화를 즐기며 정신수양을 함양하고 나아가 사대부적 오락을 즐기며 고상한 인격을 배양하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양주염상들은 ‘가이호유(賈而好儒)’로의 추구하고 ‘역유역가(亦儒亦賈)’로의 정신적 취향에 따라 원림을 건축하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삼았다. 이로 건륭연간에 양주의 원림건축이 매우 왕성하였으며 빼어나고 아름다워 전국에서 최고라고 할 정도로 이름이 났다. 천친제엔(陳勤建)의 통계에 의하면 이 시기 양주에 염상이 만든 원림은 47개로 청대 양주 염상원림의 76%를 차지한다고 한다.¹⁶⁾ 양주 염상이 만든 원림은 수량이 많을 뿐 아니라 대단히 화려하고 설계가 독특하여 “원림을 지을 때 마다 아무리 박식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유래를 알 수 없었으며”¹⁷⁾ 또한 “인공적이지만 기묘하고 환상적이며 자연과 잘 어우러져 매우 아름답다”¹⁸⁾고 한다.

더욱이 건륭제의 여러 차례의 남방순시는 원림 건축을 더욱 촉진시켰다. 건륭제는 남방순회 때 마다 염상들의 원림을 방문하고 차를 마시고 극을 관람하곤 했기 때문이다. 휘주상인 왕석공(汪石公)의 처는 건륭제의 남순(南巡)을 앞두고 항주의 서호 풍경을 본뜬 호수와 원림을 조영하여 어람용으로 바쳤다고 한다. 이처럼 염상들은 막대한 거금을 투자하여 원림을 건축하였으니 그 규모는 거대하고 화려하여 천하에서 양주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고 할 정도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당시 양주염상들은 이처럼 원림을 건축하고 마치 자신들이 사대부처럼 사대부나 명사들을 사귀고 문화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유행이었다.¹⁹⁾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각지에서 유명 문인들이 양주로 모여 들었고 염상

16) 陳勤建, <清代揚州鹽商園林及其風格>, 《同濟大學學報》, 2001년, 5기.

17) “故每一造作, 雖淹博之才, 亦不能巧其所從出”, 《揚州畫舫錄》, 282쪽.

18) “雖全是人工, 而奇思幻想, 點綴自然, 卽閨苑瑤池 瓊樓玉宇, 諒不過此”, 沈復, 《浮生六記》卷四<浪遊記快>, 華夏出版社, 2006.

19) “兩淮漕業又適當極盛之時, 故各大商不惜糜千萬巨金, 爭造園林, 以備翠華臨行”, 王振世, 《北郊二十四景總說》, 《揚州覽勝錄》卷一, 江蘇古籍出版社, 2002, 36쪽.

들의 든든한 경제적 후원을 받으며 시문 모임이 아주 성대하게 열렸다. 이런 상황을 이두(李斗)는 《양주화방록(揚州畫舫錄)》²⁰⁾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양주의 시문 모임은 마씨(馬氏)의 소영농산관(小玲隴山館), 정씨(程氏)의 소원(篠園), 그리고 정씨(鄭氏)의 휴원(休園)에서 열리는 것이 가장 성대했다. 시문 모임 날이 되면 원림에 책상을 하나씩 마련하고 책상 위에는 붓 두 자루, 먹 한 개, 벼루 한 개, 연적 한 개, 종이 네 장과 시운 하나, 찻주전자 하나, 접시 한 개, 과일과 다식을 담은 그릇을 하나씩 올려놓는다. 시를 다 짓고 나면 그것을 바로 인쇄한다. 3일 안까지 고치면 다시 찍을 수 있다. 문집이 나오면 그날 성 안에 두루 보낸다. 매번 모임에 준비되는 술과 안주는 대단히 훌륭하였다. 하루 동안 모든 시는 완성된다. 음악을 청해 듣는데 참가자들은 매우 오래된 대청으로 안내되고, 그곳에는 푸른 유리창이 사방으로 나 있다. 또 대략 나이든 악공 넷을 뽑아서 데려오는데, 그들은 모두 이가 빠지고 머리가 벗어졌으며 나이는 팔구십 정도 된다. 악공들은 각자 한곡씩을 연주하고 물러났다. 잠시 후 병문(屏門)을 열도록 하는데, 문이 열리면 뒤쪽에 늘어진 건물들은 모두 누대들로, 누대에는 수많은 등불이 내걸려 있다. 남녀가 각기 하나의 악대를 이루는데, 모두 십오륙 세의 소년소녀들이다(揚州詩文之會, 以馬氏小玲隴山館、程氏篠園及鄭氏休園爲最盛。至會期, 于園中各設一案, 上置筆二, 墨一, 端研一, 水注一, 箋紙四, 詩韻一, 茶壺一, 碗一, 菓盒茶食盒各一。詩成卽發刻。三日內尙可改易重刻。出日徧送城中矣。每會酒飯俱極珍美。一日共詩成矣。請聽曲, 邀至一廳甚舊, 有綠琉璃四。又選老樂工四人至, 均沒齒禿髮, 約八九十歲矣。各奏一曲而退。條忽間命啓屏門, 門啓則後二進皆樓, 紅燈千盞, 男女樂各一部, 俱十五六歲妙年也。²¹⁾

20) 《揚州畫舫錄》은 청나라 이두(1749-1817)의 저작으로, 18세기 중국 강남 문화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揚州의 다양한 도시문화를 기록하고 있다. 건륭 29년(1764년)에 집필을 시작하여 건륭 60년(1795년)에 출판된 《揚州畫舫錄》은 총 30년의 시간을 투자하여 완성된 이두 일생의 대작으로, 자서에서도 밝혔듯이 경서에 파묻히기보다는 명승을 유람하고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좋아하여 30년 동안 양주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바를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총 18권 24만자에 이르며 양주를 12개 구역으로 나누고 각각 그와 관계되는 사원, 명승, 풍속, 오락, 인물 등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18세기 당시의 양주 영상들의 화려한 의식주와 축첩, 소송 등 갖가지 생활양식과 원림, 장서, 금석문 및 시회와 같은 문화 활동, 각종 잡극과 원본의 배우 및 극단 작품 현황과 양주를 무대로 활동한 학자들의 업적에 대해서 밀도 있게 그려내고 있어 18세기 강남을 대표하는 양주의 다양한 모습을 연구하고 검토하는데 소중한 자료이다. 본 논문에서는 《청대사료필기총간》에 수록되어 있는 《양주화방록》(중화서국, 2004)을 저본으로 한다.

21) 《揚州畫舫錄》, 180쪽.

위의 내용을 통해 당시 시문모임이 얼마나 성대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우선 유명한 원림에서 많은 문인들이 모여 시를 짓고, 이 시가 완성되면 바로 출판에 들어감을 알 수 있다. 또한 훌륭한 여러 음식과 문방사우, 그리고 연륜이 있는 악공의 노래와 연극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이처럼 당시 양주에는 이런 사회가 흥성했고 이들은 사회가 끝나면 노래와 연극 공연을 감상했던 것이다.

일반적인 양주 염상들이 원림을 건축하고 이런 일련의 시문모임을 위와 같이 전개했다면 평소에 시 짓기를 좋아하고 문인들과 교류하기를 즐겼던 강춘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총상이던 그는 건륭제의 남순을 위해 막대한 경제력으로 많은 원림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유명한 많은 문인들을 불러 모아 이런 시문활동을 전개했다. 《양주화방록》의 기록에 의하면 강춘은 수월독서루(隨月讀書樓), 추성관(秋聲館), 강가전도(江家箭道), 수남화서(水南花墅), 심장(深庄), 정향원(淨香園), 동원(東園)과 강산초당(康山草堂) 등 다수의 원림을 조성했고²²⁾, 그 중 강산초당이 가장 유명하다고 한다.

강산초당은 양주 개인 원림의 모범으로 강산(康山) 옆에 명대 정덕년간에 처음으로 건립되었다. 그러나 명말 청초 전란으로 황폐화된 것을 강춘이 사들여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거쳐 원래의 모습을 회복했다. 강산초당이 얼마나 아름다운 원림인지 심초(沈初)가 지은 절구 네 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²³⁾

즐거워라 소식이 나와 함께 하여
 이름난 정원에 고삐를 멈추고 가는 길 늦춘다.
 옷자락 휘날리며 곧장 강산 정상에 오르니

22) “居南河下街，建隨月讀書樓。選時文付梓行世，名隨月讀書樓時文。於對門爲秋聲館，飼養蟋蟀。所造制沉沉盆，與宣和金銀等。徐寧門外霽隙地以較射，人稱爲江家箭道。增構亭榭池沼，藥欄花徑，名曰水南花墅。乾隆己卯，芍藥開並蒂一枝，庚辰開並蒂十二枝，枝皆五色。盧轉使爲之繪圖徵詩，錢尚書陳羣爲之題襲香軒扁。自著有水南花墅吟稿，東鄉構別墅，謂之深莊。著深莊秋咏，北郊構別墅，卽是園，有黃芍藥種，馬秋玉爲之徵詩，丁丑改爲官園。上賜今名，移家觀音堂，家與康山比隣，遂構康山草堂”。《揚州畫舫錄》，247쪽.

23) 總憲 벼슬을 지낸 심초가 사계관과 주효순을 불러 강산에 나들이를 갔는데, 그때 정원의 주인인 강춘이 시를 지어 달라고 청하자 심초가 절구 네 수를 읊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揚州畫舫錄》에 기록되어 있다. 《揚州畫舫錄》，14-15쪽 참조.

십리 양주 땅이 그림보다 아름답구나.

풍류 고사가 당시의 일 얘기해 주고
지리의 기록은 새로 황궁의 책에 기록되었네.
미세하게 들려오는 소나무 숲의 파도소리 들어보니
누군가를 위해 일찍이 비파 타는 소리인 듯하네.

성긴 격자창 사이로 층층이 쌓인 가파른 돌들
가을 풍경 장식하니 그림 병풍보다 아름답구나.
주인의 맑은 기상 마치 학과 같으니
날마다 쌍쌍이 학들 고아한 선비 바라보기 때문이었구나.

멋진 정원 연회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깊은 밤에도 손님 붙들어놓고 술을 사오지.
오늘 밤 등불에 사람 그림자 어우러지니
또 다시 서호에서 지내던 옛날 꿈꾸게 하네.

高興眉公一起予，名園駐轡度行徐。
振衣直上康山頂，十里揚州畫不如。
風流故事說當年，地志新收御府編。
試聽松濤聲入細，爲曾吹上琵琶絃。
幾層瘦石間疏櫺，點綴秋英勝畫屏。
怪底主人清似鶴，日看雙鶴對梳翎。
射堂歌席一相娛，深夜留賓買玉壺。
今夕燈光人影裏，重教舊夢落西湖。

위의 시를 통해 강산초당이 얼마나 운치 있고 아름다운 곳인지를 알 수 있다. 아마 이 강산초당은 강춘이 특별히 건륭제를 위해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건륭제가 이곳에서 두 번이나 머물렀기 때문이다. 더욱이 건륭제는 강산초당에 대해 몇 편의 시를 썼고, 또 편액을 새로 써주어 이로 강산초당은 더욱 유명해졌다.²⁴⁾ 또한 심초는 강춘의 기상을 학에 비유하고 있어 그의

www.kci.go.kr

24) 건륭제가 강산초당에 대해 지은 시는 <遊康山卽事二首>와 <遊康山> 등이 있는데, 이 시들은 《揚州歷代詩詞》三(인민문학출판사, 1998, 123쪽)에 실려 있다.

내면세계가 일반 염상과는 다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춘 본인은 시문에 능했고 또한 총상이라는 특수한 신분과 지위, 그리고 염상의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강산초당은 당시 문인이나 희곡가들이 머무는 거처인 동시에 연회를 하는 중요한 장소였다. 본성이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좋아하여 유명한 문인들을 불러 모아 술을 마시고 시부를 짓고 노래를 하는 것이 아침부터 밤까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강춘이 초대한 사람은 문인 사대부에서 예술 종사자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²⁵⁾ 대표적인 문인, 희곡가로는 장사전(蔣士銓)²⁶⁾, 김조연(金兆燕)²⁷⁾, 장종해(蔣宗海) 등이 있다. 특히, 희곡가인 장사전과 김조연 등은 오랜 동안 강춘의 집에 기거한 사람들이다. 장사전은 사장(詞章)과 곡률(曲律)에 능통하여 많은 잡극과 전기를 지었는데,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사현추(四絃秋)》는 바로 그가 강춘의 빈객으로 있을 때 지은 작품이다. 김조연 또한 시와 사를 잘 지었으며, 특히 원나라 때 유행했던 산곡에 정통했다. 강춘은 그를 초빙하여 10년 동안 사서에 빈객으로 대접했다. 원림과 정자의 집련과 대회의 사곡은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다.²⁸⁾

25) “(江春)性好客, 招集名流, 酒賦琴歌, 不申旦不止. 邗江地當冲要, 公卿士大夫下至百工伎藝, 得珍怪之物, 及書法名畫, 無不催衆衆然及公門, 如龍魚之趨大壑. 公一與申納周旋, 必副其意使去. 以故賓從借公起家者無慮數十輩”, 袁枚《小倉山房詩文集》, 上海古籍出版社, 1988년, 1862쪽.

26) 장사전은 자는 心餘 혹은 淸容이고, 호는 藏園이며, 江西 鉛山이다. 건륭 22년(1757)에 진사가 되어 翰林院編修를 지냈다. 그는 잡극과 전기 16종을 지었는데, 잡극 《一片石》 《第二碑》 《四弦秋》 3종과 전기 《空谷香》 《桂林霜》 《雪中人》 《香祖樓》 《臨川夢》 《冬青樹》 6종을 합쳐 ‘藏園九種曲’(일명 《紅雪樓九種曲》)이라 칭한다. 보통 대표작으로는 白居易의 《琵琶行》을 근거로 한 《四弦秋》를 들고 전기 작품 중에는 湯顯祖의 주요 사적을 제재로 한 《臨川夢》과 文天祥의 고사를 다룬 《冬青樹》를 잘된 것으로 꼽는다. 詞章과 曲律을 아울러 중시하여 당시에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27) 김조연은 자는 鐘樾, 호는 棕亭, 全椒사람이다. 그의 부친 김구는 자가 堯재인데 시를 잘 지었고 태연재집이라는 저작을 남겼다. 김조연은 어려서부터 신동으로 불려서 첩사 벼슬을 재낸 장봉충과 나란히 명성을 날렸다. 그는 시와 사를 잘 지었으며, 특히 원나라 때 유행했던 산곡에 정통했다. 강춘은 그를 초빙하여 10년 동안 사서에 빈객으로 대접했다. 원림과 정자의 집련과 대회의 사곡은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다. 그는 중년에 거인출신으로 양주교관이 되었으며, 나중에 진사에 급제하여 박사로 뽑혀 경사에 들어가 근무했다. 그리고 3년 후에 양주로 돌아와 강산초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의 저작으로는 《贈雲軒詩文集》이 있다

이외에도 강춘의 집에서 거주하는 빈객들 예를 들면 원매(袁枚), 조익(趙翼) 등은 며칠 혹은 몇 달을 추성관에서 머물렀고, 오매촌(吳梅村)의 손자 오헌(吳獻)은 이십여 년을, 심대성(沈大成)은 십여 년을 빈객으로 머물렀다고 한다.²⁹⁾ 이처럼 강춘은 이들 모두를 마치 식객처럼 거두어 보살피 주었을 뿐 아니라 자주 이들과 음주를 하고 시를 짓고 연극을 관람하였다. “건륭 기묘년(1759)에 작약이 필 때 한 가지에 꽃 두 송이가 나란히 피더니 경진년(1760)에 필 때는 그런 가지가 열두 개나 되었고 가지마다 모두 형형색색 아름다웠다. 전운사 노견증(盧見曾)이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것을 노래한 시를 모았으며 상서를 지낸 전진군(錢陳群)이 편액에 습향헌(襲香軒)이라는 글자를 썼다”.³⁰⁾ 이런 일상적인 시문활동 외에 강춘 일생에서 가장 유명한 시문활동은 건륭31년(1766) 12월 19일에 소동파 탄신 700주년을 기념하는 시문모임으로 한향관에서 소동파의 초상을 걸어 놓고 열렸다. 이날 이곳에는 당시에 유명한 문인학자인 전진군(錢陳群), 조인호(曹仁虎), 장사전, 김농(金農), 진장(陳章), 정섭(鄭燮), 대진(戴震), 심대성(沈大成) 등이 참여했다.³¹⁾ 이렇게 시문을 짓고 나면 당시의 풍조처럼 연극공연을 감상했을 것이다. 그날의 연극 공연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시문모임이 끝나면 늘 그랬듯이 연극을 감상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강춘은 평소에도 주로 강산초당에서 연극공연을 주관했는데, 늘 서너 개의 극을 동일 한 날에 각기 다른 별장에서 공연했는데 이때 극을 관람한 손님이 무려 수백 명이었다고 완원(阮元)은 회상했다.³²⁾

이처럼 강춘은 강산초당 등의 원림에서 든든한 경제력과 넉넉한 마음으로 문인들의 시문활동과 연극 공연 등의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던 것이

28) “公延之使署十年，凡園亭集聯及大戲詞曲，皆出其手，中年以舉人爲揚州教官，後成進士，選博士，入京供職。三年歸揚州，遂館於康山草堂”，《揚州畫舫錄》，234쪽.

29) 沈大成，《學福齋集 學福齋詩集》卷四《金竹山居詩序》.

30) “乾隆己卯，芍藥開並蒂一枝，庚辰開並蒂十二枝，枝皆五色，盧轉使爲之繪圖徵詩，錢尙書陳羣爲之題襲香軒扁”，《揚州畫舫錄》，274쪽.

31) 阮元，《淮海英錄集·江春傳》戊集卷四，叢書集成初編.

32) 阮元，《淮海英錄集·江春傳》戊集卷四，叢書集成初編.

다. 이런 “그가 죽자 그 집 문 앞에서 울며 절하는 이름 모를 사람들이 날마다 수십 명이나 되었다”고³³⁾ 하니, 이는 그의 면모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3. 희곡 활동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춘은 강산초당 등의 원림을 건축하고 많은 문인들과 교류하며 문학 활동을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연극을 자주 공연했다. 본 장에서는 강춘이 구체적으로 어떤 희곡 활동을 했는지를 살펴봄과 동시에 그것이 양주 희곡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3.1 작품 창작에 기여

희곡 애호가였던 강춘은 직접 극을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희곡가에게 작품 창작을 의뢰하였고, 또 자신이 극본의 곡물 수정 작업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序)를 쓰기도 하였다. 극본이 완성된 뒤에는 자신의 극단에서 초연을 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장사전의 《사현추》이다. 건륭 3대가 중의 한 명인 장사전은 시문에만 능한 것이 아니라 희곡 창작에도 뛰어난 능력을 갖춘 문인이며 동시에 희곡가이다. 그가 건륭 37년(1772) 양주 안정서원(安定書院)의 원장으로 있을 때 강춘의 추성관에 머물렀다. 그의 시문 능력에 감복해 하던 강춘은 그때 자주 장사전과 술자리를 가졌다. 그러던 어느 날 강춘은 그에게 작품 창작을 의뢰하게 되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장사전은 《사현추·자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33) “方伯死，泣拜於門不言姓氏者，日十數人”，《揚州畫舫錄》，247쪽.

임진년(건륭 37년, 1772) 늦가을 학정주인은 원춘포(袁春圃)와 김종정(金棕亭) 그리고 나를 추성관 연회에 초대했다. 음악이 연주되고 술을 마시는 중에 학정은 우연히 백거이의 <비파행>을 듣고 예전에 창작된 작품인 《청삼기(靑衫記)》에서 향산(香山)에서 평소에 기생을 데리고 놀고 강주에서 손님을 보내고 여전히 사마에게로 돌아가 약속을 지켰지만 주제와 문체가 용렬하고 조야하다고 말했다. 동인(함께 일하는 사람)과 나는 곡률에 대해 개략적으로 알고 있어 서로 각기 한 작품씩을 지어 배우들이 연습할 때 예전의 오류를 없애기로 하여 나는 그러겠다고 했다. 다음 날 시의 본의를 취하고 목차를 나누고 《당서(唐書)》에 기록된 원화(元和) 9년과 10년의 정치적 상황과 《향산연보·자서(香山年譜·自序)》를 널리 인용하여 문장을 구성했는데 매일 밤 등불을 켜고 한 척(齣)씩 지어 오일 만에 완성하였다(壬辰晚秋, 鶴亭主人邀袁春圃觀察、金棕亭教授及予, 宴于秋聲之館。竹石蕭瑟, 酒半, 鶴亭偶舉白傳《琵琶行》, 謂向有《靑衫記》院本, 以香山素狎此妓, 乃於江州送客時, 仍歸於司馬, 踐成前約。命意數詞, 庸劣可鄙。同人以予粗知聲韻, 相屬別撰一劇, 當付伶人演習, 用洗前陋, 予唯唯。明日, 乃翦割詩中本義, 分篇列目, 更雜引《唐書》元和九年十年時政及《香山年譜·自序》, 排組成章, 每夕挑燈填詞一齣, 五日而畢。³⁴⁾

이상은 장사전이 어떻게 《사현추》를 창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강춘은 술자리에서 <비파행>을 소재로 지은 명대 고대전(顧大典)의 《청삼기》의 내용과 문체가 용렬하다고 비평하며 장사전에게 새로 창작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장사전은 <비파행>의 본의만을 취하고 《당서》와 《향산연보·자서》 등의 역사적 자료를 널리 참고하여 닷새 만에 《사현추》를 완성했던 것이다.

완성 후 그는 강춘에게 《사현추》를 보였고 강춘은 바로 덕음반을 시켜 공연하게 했다. 이 공연을 본 강춘과 관객들은 모두 감탄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사현추》에 대한 강춘의 감상은 그의 《사현추·서(序)》에 잘 나타나 있다.

막 연산(鉛山) 장태사가 추성관에서 지내 나는 창작된 범례(凡例)를 꺼내 그것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하자 태사는 박수를 치며 좋다고 했다. 그래서 서로 함께

34) 《蔣士銓戲曲集》, 中華書局, 1993년, 185쪽.

논의하다가 우연히 <비파행>에 말하다가 옛 사람이 지은 《청삼기》는 주제와 문체 모두 우아한 맛을 잃었다고 말했다. 태사는 사를 짓는데 능하니 달리 한 작품을 지어 그런 오류를 씻어 줄 것을 청했다. 이에 태사는 흔쾌히 허락하고 창작하여 오일 만에 탈고하여 제목을 《사현추》라 하고 나에게 보여 주었다. 나는 그것을 읽고 태사의 재능의 위대함을 감탄하고 나와 있지 않은 사건의 실마리를 인용하여 여자는 완곡해지고 떠나는 나그네의 수심을 잘 표현해 그 미묘함이 아주 곡진하게 드러나 있음에 감탄했다. 드디어 옛 사람의 줄렬함을 비웃어 새로운 의미를 추가 하니 바로 고재(苦才)가 다함일 뿐이다. 급히 집안의 배우들에게 넘겨 공연을 하게 하여 손님을 초대해서 함께 감상하니 보던 사람들은 흐느껴 울며 탄식하여 슬픔을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니 사람들이 마치 청삼을 흠뻑 적신 강주사마와 같았다. 무릇 문장의 가장 높은 경지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인데 태부의 시나 태사의 사는 모두가 천고의 절창으로 하나가 되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으니 이것을 어찌 그렇지 않다 하겠는가(適鉛山蔣太史心餘, 過我秋聲館, 因出所創凡例就質焉。太史拊掌曰善。遂相與上下其議論, 偶及琵琶行, 舊人撰有《青衫記院本》, 命意遺詞, 俱傷雅道。太史工填詞, 請別撰一劇前雪之。太史欣然諾從, 閱五日即脫稿, 題曰《四絃秋》, 示余。余讀之而嘆, 嘆夫太史之才之大, 徵引不出本事, 而閨房婉轉, 遷客羈愁, 描摹鏤刻, 一一曲盡其妙。乃益笑昔人之拙, 其增添新意, 正苦才窘耳。亟付家伶, 使登場按拍, 延客共賞, 則觀者輒歔歔太息, 悲不自勝, 殆人人如司馬青衫矣。夫文之至者能感人, 太傅之詩, 與太史之詞, 皆千秋絕調, 合而爲一, 其尤足以感人也, 不宜乎)。³⁵⁾

위 내용을 통해 《사현추》 내용의 자연스러움과 곡진함, 그리고 얼마나 감동적인 작품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³⁶⁾ 강춘은 자신이 장사전에게 새 작품을 창작해 줄 것을 청했고, 이에 흔쾌히 허락한 장사전은 닷새 만에 《사현추》를 지었다. 강춘은 이 작품을 읽고 시의 본의만을 취하고 원래 없던 내용을 더하

35) 《蔣士銓戲曲集》, 中華書局, 1993년, 187쪽.

36) 《사현추(四絃秋)》는 당대 백거이의 <비파행>을 근거로 지은 잡극으로 백거이가 강주사마로 폄적당했을 때 손님을 전송하다가 강가에서 들려오는 비파소리를 들었는데, 연주하던 늙은 여인은 옛날 장안의 명기였던 화퇴홍이었다. 이 작품에서 장사전은 비파 타는 여인에 투영된 백거이의 울적한 심정을 위주로 묘사하여 감동을 전하고 있다. 《사현추》는 한편의 抒情詩劇로 4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茶別, 改官, 秋夢, 送客인데 모두가 <비파행>에서 부연한 것이다. 茶別은 “그는 잇속에만 밝고 이별은 가볍게 여기는 자인데 지난 달에 부랑으로 차를 사러 떠났습니다”를, 改官은 “나도 지난 해 장안을 떠나와서 귀양과 심양에 살고 있는 몸입니다”를, 秋夢은 “깊은 밤에 문득 젊은 시절 생각나서 꿈속에서 한바탕 울고 나면 화장 얼굴 눈물만 흘렸지요”를, 送客은 “좌중에서 가장 많이 눈물 흘린 사람은 청삼을 흠뻑 적신 강주사마였노라”를 중심으로 극을 전개한 것이다.

여 백거이의 진면목을 더욱 부각시켜 서정적인 회환을 눈물로 적시게 하는 그의 재능에 크게 감동했다. 이에 강춘은 집안의 가반인 덕음반에게 초연을 공연하도록 했다. 그날 유명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재불우한 백거이가 충심은 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해와 동정을 함께 나누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강춘은 《사현추》의 곡률 수정 작업에 직접 참여하였는데³⁷⁾, 이는 그가 진정 희곡 음악을 이해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사현추》를 기념하는 격려의 글인 제사(題詞) 4수와 장사전의 또 다른 작품인 《계림상(桂林霜)》을 위해 격려의 글인 제사 6수를 지었다.

이상의 내용으로 강춘은 단순한 희곡 애호가가가 아니라 희곡에 대해 깊은 조예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2 극단 조직 및 공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춘은 자신의 극단인 덕음반에서 장사전의 《사현추》 공연을 주관했다. 덕음반은 당시 희곡의 주류인 곤곡을 공연하는 극단으로 최고 배우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 날의 공연이 얼마나 압권이었을지 가히 짐작할만하다. 이런 덕음반 외에도 강춘은 화부에도 관심을 가져 춘대반을 조직하여 아부와 화부의 연극을 동시에 육성했다.³⁸⁾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자신이 희곡에 대한 애호가 남달랐다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륭제의 남방 순행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건륭제는 재위 60년(1736-1795) 동안에 여섯 차례 강남을 순회 하였다. 그 때마다 건륭제는 양주에 머물러 염상들은 “회남(淮南), 회북(淮北)의 30개 총

37) 홍설루장본(紅雪樓藏本)에 있는 《사현추》에 “鶴亭居士正拍, 淸容主人填詞, 夢樓居士題評”이라 기록되어 있다.

38) 강춘의 극단 조직과 공연 부분은 줄고인 <《양주회방록》의 중국희곡사료적 가치 탐색>(《중어중문학》 47집)과 <청대 휘주상인과 양주의 희곡예술>(《중국문화연구》 17집)을 참조하여 기술하였다.

상에서 구역을 분담하여 향정(香亭)을 설치하고, 음악을 연주하고 연극을 공연하며 이곳에서 황제의 행차를 맞이했다”.³⁹⁾ 이처럼 황제를 접대하는 성대하고 지극히 화려한 연회가 베풀어졌는데 연극은 그 중요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였다. 그래서 양주 염상들이 관장하는 양회염무에서는 관례에 따라 대희(大戲)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각 각의 극단을 만들었고, 이 극단을 통칭하여 ‘내반’이라 불렀다.⁴⁰⁾ 대희란 ‘신선과 부처, 빼어난 남녀에 대한 이야기, 태평성대의 풍경을 묘사한 연극⁴¹⁾’으로 결국 황제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극을 준비했음을 알 수 있다. 양주 염상들은 황제의 남순을 영접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아끼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혼신의 힘을 다해 준비했다. 이런 과정에서 강춘은 총상으로써 다른 염상들처럼 황제의 남순을 위해 최고의 곤곡극단인 덕음반을 조직했을 뿐 아니라 화부에도 관심을 가져 당시 양주에서 유행하던 그 지역의 지방극인 본지난탄(本地亂彈)을 기반으로 하여 춘대반을 조직하였다.

당시 양주는 중국희곡사에서 ‘화아지분(花雅之分)’의 구체적 탄생지라 볼릴 만큼 화부도 곤곡처럼 매우 번성했다. 강춘은 이런 화부의 생동감 있는 예술 특성에 관심을 기우려 덕음반 뒤에 춘대반을 만들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문헌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자료를 통해 그 선후를 알 수 있다. 춘대반이 조직되었을 당시 여러 방면으로 부족하자 강춘은 많은 노력을 기우렸다. 그는 우선 소주(蘇州)의 양팔관(楊八官)과 안경(安慶)의 학천수(郝

39) “淮南北三十總商分工派段，恭設香亭，奏樂演戲，迎鑾於此”，《양주화방록》，20쪽.

40) “兩淮鹽務는 관례대로 花와 雅 두 部를 육성하여 大戲를 준비했다. 雅部는 ‘崑山腔’이고, 花部는 京腔, 秦腔, 弋陽腔, 梆子腔, 羅羅腔, 二簧腔인데, 이 모두를 ‘亂彈’이라 부른다. 곤산강은 상인 徐尙志가 蘇州의 유명한 배우들을 초빙하여 老徐班이라는 극단을 만들면서 시작되었고, 이어 黃元德, 張大安, 汪啓元, 程謙德 등도 각기 극단을 만들었다. 洪充實은 大洪班을, 江廣達은 德音班을 만든 후 다시 화부의 배우들을 모아 春臺班을 만들었다. 이로 부터 덕음반은 內江班이 춘대반은 外江班이 되었다. 지금 내강반은 洪箴遠에게 외강반은 羅榮泰에게 귀속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內班’이라 부르고 대희공연을 준비했다(兩淮鹽務, 例蓄花、雅兩部以備大戲。雅部即崑山腔；花部爲京腔、秦腔、弋陽腔、梆子腔、羅羅腔、二簧腔, 統謂之亂彈。崑腔, 始於商人徐尙志徵蘇州名優爲老徐班, 而黃元德、張大安、汪啓元、程謙德各有班。洪充實爲大洪班, 江廣達爲德音班, 復徵花部爲春臺班。自是德音班爲內江班, 春臺班爲外江班。今內江班歸洪箴遠, 外江班隸於羅榮泰, 此謂之內班, 所以備演大戲也), 《양주화방록》, 107쪽.

41) 《양주화방록》, 107쪽.

天秀) 같은 이름난 단역배우들을 사방에서 초빙하였다. 그리고 건륭 40년(1785) 연극 내용이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북경에서 쫓겨난 진강(秦腔) 연극의 명배우 위장생(魏長生)이 강학정의 춘대반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다. 강춘은 배우들로 하여금 그의 진강 연기의 진수를 배우게 하여⁴²⁾, 양팔관과 학천수 등은 위장생으로 부터 진강과 경강 연극의 장점을 흡수하여 춘대반은 마침내 경강과 진강을 함께 아우르며 되었다.⁴³⁾ 그가 이처럼 많은 노력을 기우렸던 것은 화부에 대한 상층 계급의 관심과 애호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건륭제는 예술을 폭넓게 수용한 황제로서 연극을 무척 좋아하여 때때로 잠행하여 시중의 극장까지 연극을 보러갈 정도였다고 한다. 이런 황제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는 혼신을 다해 극단을 이끌어 갔던 것이다.

강춘은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극단을 조직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공연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훌륭한 배우들을 불러 모았다. 우선 덕음반의 경우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양자강 하류의 동남지역에서 음악이 가장 성한 곳이 양주이다. 나의 사촌형 강춘은 자는 영장, 호는 학정으로 의읍의 제생이다. 범법자 장봉을 잡아 포정사의 직함을 내려 받았고 천수연에 참가하여 건륭제를 배알하였다. 시에 능하여 제소남과

42) 위장생은 북경을 떠나 揚州로 가서 江鶴亭이 세운 春臺극단에 들어가 융성한 대접을 받으며 연기자를 육성했고, 외설스러운 연기로 그 지방 관객들에게도 인기를 끌었다. 趙翼《檐曝雜記》：“歲戊申，余至揚州，魏三者，忽至江鶴亭家，酒間呼之登場，年已四十，不甚都麗，惟演戲能隨事日出新意，不專用舊本，蓋其靈慧較勝云。” 沈桐威《諧驛南部條》：“……自西蜀魏三兒來吳，淫聲妖態，闖入歌臺，亂彈部靡然效之，而崑班子弟，亦有倍師而學者。”

43) “양주 성에서 江鶴亭이 본지난탄의 극단을 모아 春臺라 했는데, 이것이 바로 外江班이다. 강학정은 자기 힘만으로 극단을 조직할 수가 없자 蘇州의 楊八官과 安慶의 郝天秀 같은 이름난 단역배우들을 사방에서 초빙하였다. 그리고 양팔관과 학천수는 위장생의 진강과 경강 가운데 우수한 것을 채택하였으니, 예를 들면 《滾樓》, 《抱孩子》, 《賣餠餈》, 《送枕頭》 등이 그것이다. 그래서 춘대반은 경강과 진강이 합쳐서 공연하게 되었다. 態肥子は 《大夫小妻打門吃醋》을 공연하였는데 규방 아녀자의 모습을 꼭진하게 잘 표현하고 있다(城自江鶴亭徵本地亂彈，名春臺，爲外江班，不能自立門戶，乃徵聘四方名旦如蘇州楊八官，安慶郝天秀之類，而楊郝復採長生之秦腔，并京腔中之尤者如滾樓、抱孩子、賣餠餈、送枕頭之類，於是春臺班合京秦二腔矣。態肥子演大夫小妻打門吃醋，盡畫閨房兒女之態)，《揚州畫舫錄》，131쪽.

이름을 같이 했다. 강산교외에 살며 원림에는 정향원, 수남화서, 심장 등이 있는데 지금의 원아영과 견줄만하다. 덕음반에는 모두 오문의 노집수부에 있던 유명한 배우들이다. 예를 들면 노생에는 유양채(劉亮彩)와 주문원(朱文元), 소생에는 석용당(石涌塘)과 심명원(沈明遠), 노단에는 왕경산(王景山)과 비곤원(費坤元), 정단에는 임서진(任瑞珍)과 서약문(徐耀文), 소단에는 주야동(朱冶東), 김덕휘(金德輝), 왕필진(王肇珍), 동수림(董壽林), 장옥봉(張玉峰) 등이 있다. 대정에는 황병문(黃丙文)과 범송년(范松年), 정에는 심동표(沈東標)와 육정화(陸正華), 소축에는 주홍유(周鴻儒)와 승창주(滕蒼洲), 노외에는 예중현(倪仲賢), 부말에는 여홍원(余宏遠)과 심문정(沈文正)이 있다. …… 이외에 문객으로 왕래하는 사람은 교사인 장중방(張仲芳), 노외에 손구교(孫九臯), 노생에 진응여(陳應如), 소생에 장유상(張維尙)이 있다(江左絲竹之盛, 以揚州爲最. 余表兄江春, 字穎長, 號鶴亭, 儀邑諸生. 以獲逸犯張鳳, 欽加布政使銜, 預千叟宴, 際遇葛隆. 雅工詩, 與齊次風, 歷樊榭齊名, 居康山郊外, 園亭則有淨香園, 水南花墅, 深庄諸名勝. 此當今之願阿瑛也. 歌樂德音部皆吳門老集秀部名伶. 如老生: 劉亮彩, 朱文元; 小生: 石涌塘, 沈明遠; 老旦: 王景山, 費坤元; 正旦: 任瑞珍, 徐耀文; 小旦: 朱冶東, 金德輝, 王肇珍, 董壽林, 張玉峰; 大淨: 黃丙文, 范松年; 淨: 沈東標, 陸正華; 小丑: 周鴻儒, 滕蒼洲; 老外: 倪仲賢; 副末: 余宏遠, 沈文正; …… 此外往來門下者, 則教師張仲芳, 老外孫九臯, 老生陳應如, 小生張維尙).⁴⁴⁾

덕음반에 소속되어 있는 위의 배우들을 정리해 보면 아래 도표와 같다.

배역	이름
老生	劉亮彩, 朱文元
小生	石涌塘, 沈明遠
老旦	王景山, 費坤元
正旦	任瑞珍, 徐耀文
小旦	朱冶東, 金德輝, 王肇珍, 董壽林, 張玉峰
大淨	黃丙文, 范松年
淨	沈東標, 陸正華
小丑	周鴻儒, 滕蒼洲
老外	倪仲賢
副末	余宏遠, 沈文正

이 표를 통해 덕음반에는 모든 배역이 갖추어져 있을 뿐 아니라 전속 배우는

44) 清熊之縉 《花間笑語》 卷二.

22명이고 왕래하는 배우 4명을 합치면 덕음반에 속한 배우는 무려 26명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양주화방록》에 기록되어 있는 배우 12명⁴⁵⁾보다 무려 14명이 많다. 이처럼 강춘은 당시 최고의 배우만을 초빙하여 30여 년간을 양주에서 활동하였다. 이들 중 소단 김덕휘(金德輝)와 대면 범송년(范松年)은 생동적인 연기(傳神)로 유명했다. 김덕휘는 마치 “봄 누에가 실을 토하고 죽어가는 듯”이 연기했고⁴⁶⁾, 범송년은 다양한 기예인 “뛰어오르는 기술”⁴⁷⁾, “휘파람 부는 기술”로 유명했다. 덕음반의 배우들은 이처럼 뛰어난 연기로 《醉菩提》, 《爛柯山》, 《水滸記·評話》, 《霄光劍》, 《人獸關·掘藏》, 《牡丹亭·尋夢》, 《療妒羹·題曲》, 《獅吼記·梳妝跪池》, 《牡丹亭》 등의 전통적인 극본을 공연했을 뿐 아니라 장사전의 《사현추》와 같은 새로운 극을 공연하기도 하였다.

또한 강춘은 화부의 연기 예술 경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배우들을 초빙하고 훈련시켰다. 위장생과 학천수가 가장 대표적인 배우이다. 외설적인 연기로 정평이 난 위장생은 “나이 마흔에 양주에 와서 강춘의 극단에 들어가 한 대목을 공연할 때마다 상당한 출연료를 지급받았다.”⁴⁸⁾ 이런 그의 연기를 보고 배운 학천수는 “나긋나긋한 애교로 사람의 마음을 끌었기 때문에 그를 ‘사람 잡을 놈(坑死人)’이라 불렀다”⁴⁹⁾고 하니 그들의 연기 경지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45) 陳芳, 《清代戲曲研究五題》, 里仁, 2002년, 164-169 참조.

배우이름	배역	배우이름	배역
朱文元	老生	金德輝	小旦
王炳文	白面→大面	石湧塘	正生
劉亮彩	老生	王景山	老旦
沈明遠	小生	朱治東	旦
范松年	大面	楊二觀	小旦
吳端怡	正旦	董掄標	小生

46) “金德輝演牡丹亭尋夢, 療妒羹題曲, 如春蠶欲死”, 《揚州畫舫錄》, 128쪽.

47) 그의 스승 주덕부(周德敷)에게서 뛰어오르는 기술을 전수 받았고, 스승의 기예를 전수받아 《수호기(水滸記)·평화(評話)》에 뛰어났다. 《揚州畫舫錄》, 133쪽.

48) 《揚州畫舫錄》, 132쪽.

49) “郝天秀, 字曉嵐, 柔媚動人, 得魏三兒之神, 人以坑死人呼之, 趙雲崧有坑死人歌”, 《揚州畫舫錄》, 131쪽.

이처럼 강춘 극단에 속한 배우들은 아무든 화부든 관계없이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 최고의 연기력으로 각 배역의 전문적인 연기세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의 놀라운 경제력과 희곡에 대한 남다른 애호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춘의 후원으로 곤곡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었고, 화부인 춘대반은 후에 '4대 휘반' 중의 하나가 되어 경극 형성에 중요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4. 나오면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춘은 《사현추》와 같은 희곡 창작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곤곡극단인 덕음반과 화부(花部)극단인 춘대반을 조직하고 각 지역의 희곡배우들을 널리 초빙하여 예술분야에 있어 아부인 곤곡과 화부인 지방극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춘대반을 조직했을 때 그 면면이 극단의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자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춘대반은 화부의 특성을 넘나드는 극단으로 성장하여 강춘이 죽은 1년 후인 건륭 55년(1790)에 '4대 휘반' 중의 하나가 되어 북경에 들어가 경극 형성 초기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처럼 강춘은 당시 양주의 희곡발전뿐만 아니라 중국을 대표하는 경극 발전에도 공헌을 했던 것이다.

그가 이런 희곡 활동을 전개했던 가장 큰 이유는 총상으로써 남방을 순시하는 건륭황제를 맞이하기 위한 것이었다. 건륭제는 그가 근 50년 총상 역임 기간 중에 여섯 번이나 양주를 방문하였기에 그는 늘 황제의 남순을 위해 더욱 더 근사한 원림을 건축하여 황제를 만족시켜야 했고, 또 희곡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건륭제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극단을 조직하고 최고의 배우들을 영입하고 훈련시켜 배역을 전문화하여 최고의 연극을 준비했던 것이다. 특히 당시 양주에는 지방극이 활성화되어 이로 인해 관심을 갖는 건륭제에게 더욱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 춘대반을 조직하여 이 방면으로 공을 들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 외에도 그는 과거에는 실패했지만 학문과 상업을 병행하는 '역가역유(亦賈亦儒)'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학식과 문화적 소양을 겸비하여 유가 문화를 숭상하고 문인사대부 계층과 긴밀한 유대를 갖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시문활동과 희곡 활동에 직접 참여했던 것이다.

이처럼 유학을 숭상하며 또 관료이고 염상으로 당시 양주를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주름잡은 '거물[大腕]' 강춘의 튼튼한 경제력과 열성적인 후원이 있었기에 18세기 양주의 희곡 예술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음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중국 희곡의 발전과정 속에 상인의 역할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여, 이 연구가 향후 보다 균형 잡힌 중국 희곡의 환경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전개하는데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 參考文獻 >

- 李斗(著)(2001), 汪北平 涂雨公 點校, 《揚州畫舫錄》, 中華書局.
 藏士銓(1993), 《藏士銓戲曲集》, 中華書局.
 張次溪(1991), 《清代燕都梨園史料》, 中國戲劇出版社.
 王振忠(1996), 《明清徽商與淮揚社會變遷》, 北京: 三聯書店.
 姚邦藻(2000), 《徽州學概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李華(1980), 《明清以來北京工商會館碑刻選編》, 文物出版社.
 唐力行(2003), 《商人与中國近世社會》, 商務印書館.
 高琦華(1996), 《中國戲臺》, 浙江人民出版社.
 劉文峰(1996), 《山峽商人与梆子戲》, 文化藝術出版社出版.
 劉石吉(1987), 《明清時代江南市鎮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趙山林(2008), 《中國戲曲傳播接受史》, 上海人民出版社.
 陸萼庭(1995), 《清代戲曲家叢考》, 上海: 學林出版社.
 張發穎(2003), 《中國戲班史》, 學苑出版社.

- 張發穎(2002), 《中國家樂戲班》, 學苑出版社.
- 胡忌(1985), 《崑劇發展史》, 中國戲劇出版社.
- 曾永義(2093), 《戲曲的雅俗折子·流派》, 國家出版社.
- 陳芳(2002), 《清代戲曲研究五題》, 里仁.
- 丘慧瑩(2000), 《乾隆時期戲曲活動研究》, 文津出版社.
- 明光(2083), 《揚州戲劇文化史論》,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오금성 외(1990), 《명말 청초 사회의 조명》, 한올아카데미.
- 오금성 외(2007), 《명청시대 사회경제사》, 이산.
- 오금성(1986), 《중국근세사회경제사연구》, 일조각.
- 로이드 E. 이스트만, 이승희 역(1997), 《중국 사회의 지속과 변화》, 돌베개.
- 정철웅(2002), 《역사와 환경—중국 명청시대의 경우》, 책세상.
- 티모시, 블록, 이정 가인환 역(2005), 《쾌락의 혼돈—중국 명대의 사업과 문화》, 이산.
- 김종박, <명청시기 양주도시의 발달과 염상문화의 형성>, 《史叢》67.
- 조영현, <명대 염운법의 변화와 양주 염상>, 《동양사학연구》70집.

< 中文提要 >

隨著商業的發展, 商人的勢力逐漸擴大, 並且爲了追求最大的經濟效益, 而形成以地域爲中心的商業團體, 其中以安徽商人爲主要代表。地處長江下游、爲水運交通樞紐的揚州是明清鹽商的重要聚居地。徽商以莫大的金錢和其獨特的文化魅力征服了揚州。尤其是乾隆時期著名的鹽商江春, 爲了皇帝南巡而組成內班演出, 對昆曲和亂彈戲地位和演出水平的提高, 都有著重要的意義。而且江春深受徽州地域歷史文化的影響, 繼承了“賈亦好儒”的文化傳統, 崇尚高雅文化, 從而與文人士大夫主有著密切的交往, 進而參與到戲曲活動之中。江春參與如此的戲曲活動, 促進了乾隆年間揚州戲曲的發展。

關鍵詞: 江春、徽州、鹽商、徽州商人、揚州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2. 12. 31.	2013. 2. 13.	2013. 2. 18.	2013. 2. 21.	2013. 2. 28.